

TV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20 채널A뉴스특보	00 KBS 뉴스광장	00 튠트생활체조 0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스페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20 골든 타임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00 MBC 뉴스투데이 50 2014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발경기 (LA vs 애틀랜타)	30 KBC 모닝와이드
8 15 굿모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10 좋은 아침
10 10 시사인사이드	00 특별생방송 프란치스코 방한	50 지구촌 뉴스		15 특집 SBS 뉴스
11 20 채널A 뉴스특보	00 KBS네트워크 특선 필동 55 바른말 고운말(재)	15 사랑의 가족 45 영상앨범 선(재)	15 소원을 말해봐(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20 내조의 여왕(재)	00 KBS 뉴스12	15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특별기획 (마미)(재)	00 SBS 12 뉴스 30 덕터365 35 세상발견 유레카
1 30 뉴스 특급	00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30 MBC 스포츠 2014 울산 진하 세계비지발리볼대회	35 한국의 맛
2 40 직인직실	00 TV동화 빨간 자전거(재) 05 우리말 겨우기	00 KBS 뉴스타임 10 퀴즈쇼 사총사		00 SBS 뉴스 10 긴장 클리닉
3 55 정웅관의 시사병법	00 뉴스토크	3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주로링 동물탐정(재) 55 TV유치원 콩다콩	00 MBC 경제 뉴스 10 보글 쿡 원정대 40 헬로 키즈 이해! 지구탐험대	10 방학특집 음악여행 명곡의 고향
4 55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시사선단 55 튠트 생활체조	25 마법 천자문 55 비타민(재)	30 어린이 직업탐험대 드림키즈	00 우리가 탐구생활 30 특집 SBS 뉴스퍼레이드 대통령 교향 기사회전
5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세상은 넓다		00 MBC 이브닝 뉴스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내 마음의 크레파스
6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5 덕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백일설의 그때 그 사람(재)	00 KBS 뉴스 7 30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 드라마 (배우기 동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 드라마 (사랑만 할래)
8 20 모큐드라마 싸인(재)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밥상의 신	55 MBC 일일특별기획 (엄마의 정원)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고행방한기획 KBS 파노라마 50 생명최전선	00 수목 드라마 (조선 총잡이)	00 수목미니시리즈 (운명처럼 날 사랑해)	00 드라마 스페셜 (괜찮아 사랑이야)
11 00 웰컴 투 시월드	30 KBS 뉴스라인	10 해피 투게더	15 동네 한바퀴	15 자기야
12 20 카톡스S(재) ①:30 관찰카메라 24시간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이현철의 울긋불긋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①:35 리얼 체험 세상을 품다	35 MBC 뉴스 24 55 스포츠 다이ารี	35 나이트 라인 ①:05 풋볼 매거진 골!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35 아기 고릴라 동동	14:10 외글와글 친구들	17:30 로보카 폴리
05:40 장수의 비결(재)	09:40 부모	14:20 꿀꿀! 페피는 출겨워	17:45 두더지공
06:10 세계의 눈 (특선)(재)	<생활백과>	14:30 코코몽2	18:00 생방송 토크! 보이하니
07:00 곤(재)	10:10 리얼토크 부부	14:45 곤	19:00 리얼체험 땅
07:15 우당탕탕 아이쿠(재)	10:50 최고의 요리 비결	15:00 지구를 지켜라	19:30 EBS 뉴스
07:30 꼬마버스 타요(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15 마사와 공	19:50 달라졌어요(재)
07:45 로보카 폴리(재)	<김자카 반도>(재)	15:30 꼬마겨울 프랭클린	20:40 통일 채널 e
08:00 당동당 유치원	12:00 EBS 정오 뉴스	15:45 바두와 친구들	20:50 세계테마기행 <패루>
08:20 책과 땅(재)	12:10 연중기획	16:00 당동당 유치원	21:30 한국기행
08:35 방귀대장 뽕뽕이	<행복한 교육세상>	16:20 우당탕탕 아이쿠	<순애길 풍경>
08:50 How-만들어 볼까요	13:05 역사채널e	16:30 책갈피 오정 모노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9:05 책갈피 오정 모노(재)	13:10 초등2년 EBS 여름방학생활	16:45 How-만들어 볼까요(재)	22:45 다문화 고부열전
09:20 미술탐험대	13:30 초등4년 EBS 여름방학생활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3:35 장수의 비밀
	13:50 초등6년 EBS 여름방학생활	17:15 꼬마버스 타요	24:05 EBS 스페이스 공감 1·2

EBS플러스1

00:00 율리우스	(국어 1)	11:40 박봉의 이수리 만나는 경제
00:50 "	(국어 1)	12:10 5분 과학-지구과학 1
01:40 "	<영어독해의 기본 1>	12:15 수능 원형
02:30 "	(수학 1)	13:05 "
03:20 뉴 탐스런	<한국지리>	14:00 "
04:10 "	<과학>	14:50 "
05:00 "	<한국사(하)>(재)	15:40 "
05:50 2013 포스 <미적분과 통계 기본>	16:30 "	16:30 "
06:40 압축탐스런 <지구과학 1>	17:20 "	17:20 "
07:30 2014 포스 <문학 1>	18:10 "	18:10 "
08:20 율리우스 <영어독해 기본 1>(재)	19:00 "	19:00 "
09:10 "	<수학 1>(재)	19:50 5분 과학-지구과학 1 (재)
10:00 뉴 탐스런 <과학>(재)	20:00 EBS-N제 <국어 B형>(재)	
10:50 2013 포스 <미적분과 통계 기본>(재)	21:00 "	21:00 "
	22:00 인터넷 수능 <문학 B형>	

EBS플러스2

07:00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40 초등2년 EBS 여름방학생활
07:30 실용관찰 비법 노트	16:00 초등3년 EBS 여름방학생활
08:00 전산세무회계 시험대비 강좌	16:20 초등4년 EBS 여름방학생활
08:30 직업상담사 시험대비 강좌	16:40 초등5년 EBS 여름방학생활
09:00 출제문 수록 EBS MATH	17:00 초등6년 EBS 여름방학생활
09:10 TV 중학 <국어 1>(2)	17:20 만점왕 평가문제집
09:50 "	<영어 1>
10:30 "	<도덕 2>
11:10 "	<국어 3>(4)
11:50 "	<영어 2>
12:30 15일의 기적 <국어 1>(2)	20:00 중학개념 끝장내기 <사회>
13:10 "	<영어 1>
13:50 "	<수학 1>
14:30 "	<사회 1>
15:20 초등1년 EBS 여름방학생활	22:40 중학e포스 영어독해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4일(음 7월 19일 丁巳)

子	36년생 뜻이 펼쳐보는 것이 좋겠다. 48년생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60년생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체념하는 것이 낫다. 72년생 최소화할 수 있는 조지들이 필요하다. 84년생 물밑 작업이 활발하다. 행운의 숫자 : 87, 95	午	42년생 길이가 복잡적으로 작용하여 특세하게 될 것이다. 54년생 함께하는 이와의 호흡이 중요한 때이다. 66년생 잔물결이 항해에 주는 역할은 미미하다. 78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한 요청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55, 31
丑	37년생 안팎까지 때때롭게 처리하라. 49년생 실제보다 더 부풀려진 것임을 참고하라. 61년생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아야만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 73년생 중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85년생 역을 비껴 가라. 행운의 숫자 : 37, 23	未	43년생 부단한 정진 속에서 해안이 떠오를 것이다. 55년생 상대의 의의를 정확히 파악하라. 67년생 간절히 소원이 이루어 질 수도 있는 길한 시기이다. 79년생 분명히 기회는 주어진다. 사실을 알라. 행운의 숫자 : 32, 08
寅	38년생 능력과 실재를 객관적으로 살펴야 할 때다. 50년생 시각적으로 쉽게 현혹 될 수도 있으나. 62년생 지금 실행 해놓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감안 하라. 74년생 내면과 외부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4, 38	申	44년생 돌고 도는 세상의 이치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56년생 파격적인 발전으로 인해 성과가 크겠다. 68년생 뜻이 곧다면 이루고야 마라. 80년생 미연에 조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1, 49
卯	39년생 지금 당장의 이득은 없어도 가까운 시기에 길경이 이어지겠다. 51년생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할 때다. 63년생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를 내라. 75년생 기대에 부응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9, 64	酉	45년생 충분한 분석과 고찰이 절실하다. 57년생 차질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69년생 아니 되는 것을 강행하면 무리가 따른다. 81년생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에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50, 58
辰	40년생 쉽게 장담하면 곤란해진다. 52년생 막힌 것은 속명적으로 풀어야겠다. 64년생 원만한 상대이니 현재의 형국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76년생 현재 알고 있는 것은 빗살의 일각에 불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6, 72	戌	46년생 막연한 희망 사항이라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58년생 사서라도 고생할만한 가치가 있다. 70년생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 82년생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행운의 숫자 : 59, 67
巳	41년생 과정이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53년생 취약한 곳이 보이니 속히 보완하라. 65년생 누적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77년생 활동해 보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17, 06	亥	47년생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니라. 59년생 능히 집적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71년생 외형으로는 복잡해진 것 같지만 실재로는 풍부해진 셈이다. 83년생 탄력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21, 7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 환영!” ☎010-9790-8237

“출생 비밀 중요치 않아... 보리 통해 희망 전하고파”

MBC ‘왔다! 장보리’ 김순옥 작가



“출생의 비밀이 안 까지고 있다고 우리 드라마가 느리다고 하는데 사실 출생의 비밀이 까진다고 보리가 행복해질까요? 또 보리가 장보리가 된다고 사람이 달라질까요?”

요즘 최고 인기 드라마는 MBC TV 주말극 ‘왔다! 장보리’다. 시청률 25%를 찍고 30%를 향해 달려가는 이 드라마의 시청자들은 주인공 노보리의 출생의 비밀이 만천하에 꺼져 그가 장보리, 궁극적으로는 장은비라는 이름을 찾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김순옥(43·사진) 작가는 그러한 출생의 비밀이 드라마에 던져놓은 장미일뿐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전제에서는 그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두 작품(‘웃어요, 엄마’, ‘다섯손가락’) 실패를 딛고 ‘왔다! 장보리’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한 김 작가를 최근 강남구청역 그의 집필실에서 만났다. 화수분같은 이야기꾼이자 동시에 ‘막장 드라마’라는 타이틀에서 자유롭지 않은 그와의 인터뷰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진행됐다. 선악의 극명한 대비, 권선징악이라는 뚜렷한 목표에 더해 맨주먹, 건강한 심신으로 갖은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하는 보리의 이야기가 ‘막장’의 굴레를 넘어 현재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음은 일문일답.

-또 출생의 비밀이다.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데 우리 드라마가 출생의 비밀 하나를 안 갖을 뿐이지 매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해결되는 구조로 전개됐다. 출생의 비밀은 그야말로 드라마 시작을 위해 던져놓은 장치다. 그걸 빨리 까느냐보다는 그 비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닝클레 끝러온 당신’처럼 자식을 찾아보니 훌륭하게 성장한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핏줄이라도 자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가족이 되려면 핏줄을 넘어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엄마라고 다 같은 엄마가 아니듯 세상은 인화(김혜옥 분)처럼 모성애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도시(황영희)처럼 자식 일이라면 불구덩이에도 뛰어든 사람도 있다. 우리 드라마는 출생의 비밀을 매개로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다.

-시청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

▲집에 계신 어른들이 기다리는 드라마를 쓰고 싶었다. 그러려면 쉬어야 한다. 선악의 대비가 극명하고 억울한 사람을 응원하는 데서 공감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 둘째 아들이 고1인데 복지원에 봉사활동을 가면 할머니들이 “보리가 엄마를 찾을 때까지 내가 살아야지”라며 드라마를 기다린다고 하더라. 식당을 가도 다 이 드라마를 틀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되게 보람차다. 학창시절 김수현 작가님의 ‘사랑과 진실’ 같은 드라마가 하는 날이면 아침부터 괜히 기분이 좋아졌는데 그런 기분을 시청자들이 ‘왔다! 장보리’를 보면서 느끼기를 바랐다. 이 드라마를 보는 시간만큼은 근심 걱정을 잊고 몰입해서 보고 다음회를 기다리다 보면 연속극 작가로서 더 큰 기쁨을 얻을 것 같다.

-막장드라마라는 비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막장이라는 지적이 아찔레스건이 한데 앞서 두 작품을

망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다들 ‘네가 잘 하는 걸 써라’라고 하더라. 괜히 고상한 척, 막장 아닌 척 임이 들어가서 하지 말고 잘 하는 걸 쓰라고 하더라. 하지만 그렇다고 예전과 똑같이 대놓고 막장을 쓸 수는 없었다.(웃음) 그런데 누군가가 시트콤을 써보라고 하더라. 실제의 내 일상은 시트콤처럼 즐겁다. 그래서 이번 드라마를 쓰면서는 자극적이고 강한 요소에 코미디를 버무렸다. 코미디가 극을 순화하면서 힐링과 카타르시스를 안겨 주는 것 같다. 맛글을 보니 ‘로코막장’이라는 새 장르가 탄생했다는 말도 있더라.

-확실히 코미디를 넣은 전략이 주요한 것 같다.

▲사실 막장이라고만 하기에 억울한 면이 있다. 웃음과 울음과 눈물과 진한 모성애와 남녀 간의 사랑이 모두 들어있다. 또 예전에는 그저 매회 사건을 많이 빨리 쳐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꼭 먼저주고, 읽어주고 넘어간다. 그 과정에서 예전 작품과 차별화를 이루고 인물들의 인간적인 면이 부각되는 것 같다. 또 배우들이 정말 잘해준다. 재희(김지훈)와 보리(오연서)의 코믹 연기 호흡이 정말 좋다. 도사의 코믹 연기도 감탄을 자아낸다. 연속극은 캐릭터가 잘 구축돼 공감을 끌어내야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 결코 작가 혼자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왜 한복을 소재로 삼았나.

▲친한 분이 한복을 만들기도 하고 평소에도 한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장 드라마를 하러니 협찬이 되지 않아 어려웠다. 지금 도와주시는 박순녀 선생님이 아니면 우리 드라마는 만들어질 수 없었다. 모든 의상과 소품을 박 선생님님이 직접 만들어주시고 협찬해주신다. 그분이 패션쇼까지 다 취소하고 우리 드라마를 위해 헌신해주셔서 제작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한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한다.

-보리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보리가 자기 힘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보여줌으로써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다. 누구나 다 힘들다. 그럴 때 보리가 온갖 방해를 씩씩하게 헤쳐나가는 것을 보여 용기를 얻기 바랐다. 또 세상에 자기 핏줄이 아니더라도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 보리가 비단이를 키우는 희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주고 싶었다.



“나인’ 보다 부담 덜해 재밌죠”

이진욱, tvN ‘삼총사’ 소현세자... 강렬한 눈빛 연기 기대

마가 소현세자의 비운의 삶 자체보다는, 삼총사와 박달항을 중심으로 역사와 로맨스, 액션 등을 버무리는 데 집중한 ‘남만 활극’이기 때문이다.

“나인’에서는 좀 힘들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면을 표현해야 하는 캐릭터여서 캐릭터 연구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는 심리적 부담이나 압박이 덜해요. 어깨의 짐을 나눠 가지니 좋네요. 대신 캐릭터들 간의 호흡이 집중하고 있어요.”

김 PD는 “소현세자 캐릭터는 밝음이 있어야 어두움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드라마가 3개 시즌으로 나눠 진행되는 동안 소현세자의 캐릭터도 입체적으로 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욱은 극중에서 세자빈이자 탈환의 첫사랑인 강빈(서현진 분), 고혹적인 매력의 첫사랑 미령(유인영)과 얽히고설린 관계를 형성한다. 이진욱은 아직 촬영 초반인 만큼 박달항 역의 정용화(25)와는 자주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대신 호탕한 성격의 호위무사 허승보 역을 맡은 양동근(35)과는 “찍찍 붙는다”며 친밀감을 표현했다.

“연기라는 것이 주고받는 것인데 승보 형과 하면 정말 재미있는 리액션이 나와요. 눈빛 하나를 주고받아도 감정이 오가고 있어요. 남자와 촬영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상상 못 했는데 말이죠.”

이진욱은 ‘로맨스가 필요해’와 ‘나인 : 아홉 번의 시간여행’에 이어 이번 작품도 tvN에서 선보이게 됐다. “주변에서는 저더러 tvN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놀리는데 tvN에 꼭 출연해야겠다고 마음먹지는 않아요. 요즘 재미있는 대본들이 tvN에 많아요. 저도 이제 신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이력에 어떤 작품이 나오면 좋을지 생각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tvN에 계속 출연하게 되네요.”

이진욱의 연인은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 출연하던 배우 공효진이다. 그는 이날 제작발표회에서 공효진과 관련된 질문을 받아 속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연습뉴스

이진욱은 ‘나인’ 촬영 때보다는 한결 밝은 표정이었다. 드라